

대주보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2020. 05. 24. (가해) 제2215호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그리스도의 승천, 게 바드 푸겔, 1893~1894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가톨릭신문사장 | 김문상 디오니시오 신부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게 지내시고 계신지요?

저는 가톨릭신문사에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 유튜브나 텔레비전으로 미사에 참여하면서 사순 시기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가톨릭신문사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 교회 역사의 기록이라는 사명감으로 가톨릭신문을 계속 발행했습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2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귀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입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들만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잊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또 복음사자들은 그 이야기를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고, 글로 쓰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조 신앙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미사에 참례하고 후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일기와 편지로 열심히 기록했기에 우리들은 초대 교회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 듣고, 또 믿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2천 년간 전해진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대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전해 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합시다.

우리 가톨릭신문사는 1927년부터 93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톨릭신문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가톨릭신문을 보는 것이고 가톨릭신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필독**

“네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탈출 10,2)

제54차 홍보 주일을 맞이하는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들려주시는 홍보 주일 담화의 주제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세상일을 바라보면서 서로 연결된 실타래처럼 우리가 서로 엮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이야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직물을 엮어내듯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이 우리에게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악으로부터 위협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해야 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거짓에 사로잡혀 입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짜깁기하고 증오의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존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나쁜 이야기는 수명이 오래가지 않지만, 좋은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삶에 자양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참되고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지혜와 거짓되고 사악한 이야기를 거부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서 첫째이고 하느님과 인류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곧 성경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사건들을 말하고 기억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번 홍보 주일 담화의 제목은 탈출기에서 뽑은 “네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탈출 10,2)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신앙의 선조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고, 표징과 기적을 통해 선조들을 종살이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탈출이라는 경험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주님을 대대로 알게 합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서는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상의 삶에서 나온 짧은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언제나 시의적절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야기도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야기가 되셨기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이야기 안에 우리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우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 주신 것을 증언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 품 안에서 엮으셨고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당신 삶으로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라테라노 성 요한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사상총서12_윤리신학3 **덕의 윤리학과 성윤리**



최성욱 신부 지음 | 190면 |
15,000원 |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강렬한 에너지

영성신학자 로널드 롤하이저(Ronald Rolheiser)는 'The Holy Longing (‘거룩한 갈망’; 『성과 성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됨)에서 인간의 성(sexuality)이 단순히 ‘부부의 세계’에 한정될 수 없고, 인간 내면의 깊은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인간의 성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강렬한 에너지”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성은 하느님을 향한 목마름이고 떠나온 하느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다.

이런 의미에서 『덕의 윤리학과 성윤리』는 ‘인간의 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 질문하면서 그리스도교 성도덕과 영성생활이 만나는 지점을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구사제와 성윤리’, ‘수도자와 성윤리’, ‘포스트 휴먼 시대의 성윤리’ 등 다양한 주제를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안내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교 인간학’에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교 덕수행과 영성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추천한다.

전쟁과 사랑 사치코 이야기

전쟁에도 사랑은 있다



엔도 슈사쿠 지음 | 김승철 옮김
616면 | 21,000원 | 바오로딸

엔도 슈사쿠가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쓴 소설인 ‘전쟁과 사랑’은 1980년 11월 1일부터 1982년 2월 7일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아사히신문>에 연재됐던 소설 제2부로 전쟁의 모순과 비극 속에서 신과 신의 사랑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사치코와 슈헤이의 이야기와 아우슈비츠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폴란드인 사제 막시밀리안 콜베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두 축을 이룬다. 주인공의 순수하고 가슴 아픈 사랑과 콜베 신부의 숭고한 사랑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앙과 현실에서 변민하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게 한다.

엔도 슈사쿠의 신앙과 그리스도관이 드러나는 이 소설은 역사책에서 배웠던 전쟁 속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있고, 그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1816~1867년)

김기량(金耆良) 펠릭스 베드로는 1816년 제주 섬 함덕리(현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은 그를 ‘김 선달’이라고 불렀다. 그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동료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중국의 광둥 해역에서 영국 배에 구조된 펠릭스 베드로는 이후 홍콩의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 대표부로 보내졌다. 이곳에서 프랑스 선교사들과 당시 휴양 중이던 조선 신학생 이 바올리노를 만나 천주교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펠릭스 베드로는 얼마 되지 않아 신앙심이 아주 깊어지게 되었고 1857년 5월 31일 홍콩의 부대표인 루세이유(J. J. Rousseille)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직후 펠릭스 베드로는 고향인 제주로 내려가기 전 페롱(S. Feron, 權) 신부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만날 수 있었다. 이때 신부들은 그가 ‘제주의 사도’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음 해 봄에는 육지로 나와 교구장인 성 베르뇌(S. Berneux, 張敬一) 주교를 만나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펠릭스 베드로는 이후로도 육지를 오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1865년에는 배가 난파하여 도착한 일본 나가사키에서 프티장(Petitjean) 신부를 만나기도 하였다. 이후 그는 육지로 다시 나와 리델(F. Ridel) 신부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공 2명을 영세시키기도 하였다. 이 무렵 그는 다음과 같은 천주가사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어와 벗님들아 순교의 길로 나아가세.
그러나 순교의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네.

나의 평생 소원은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요,
밤낮으로 바라는 것은 천당뿐이로다.

펠릭스 베드로는 능히 주님 대전에 오르기를
바라옵나이다.

제주의 복음화를 위한 그의 노력은 1866년의 병인박해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박해가 일어난 직후 그는 경상도 통영으로 무역을 하러 나갔다가 그곳의 계섬(현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에서 체포되었다.

통영 관아로 끌려간 펠릭스 베드로는 여러 차례의 문초와 형벌에도 굴복하지 않고 굳게 신앙을 지켰다. 더욱이 옥에 갇혀서는 함께 있던 교우들에게 “나는 순교를 각오하였으니, 그대들도 마음을 변치 말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권면하였다. 이후 통영 관장은 대구 감사에게 ‘펠릭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배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감사는 ‘그들을 때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다시 혹독한 매질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붙어 있자, 관장은 그들을 옥으로 옮겨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가 1867년 1월(음력 1866년 12월)로, 당시 펠릭스 베드로의 나이는 51세였다. 관장은 특별히 그의 가슴 위에 대못을 박아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제15차 교육 주간 (2020.5.25~31)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창우 주교의 교육 주간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사도 1,1-11	제 2 독 서	에페 1,17-23	복 음	마태 28,16-20
화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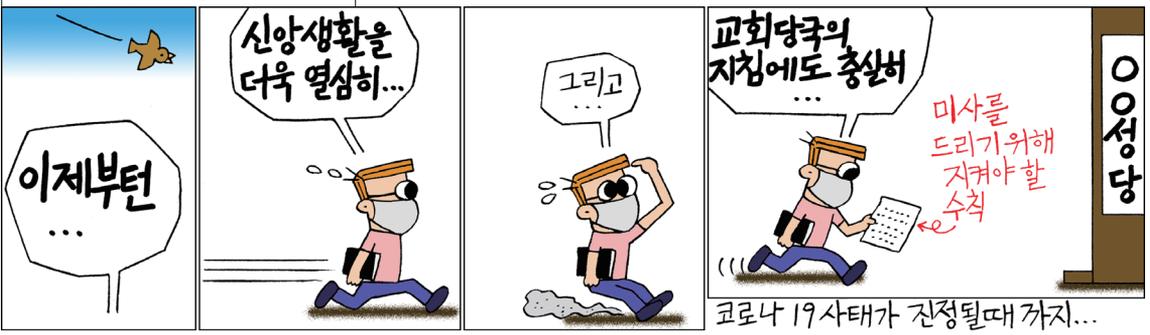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미사 중 유의사항

- 1)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는다.
- 2)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한다. 성가는 부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창자의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할 수도 있다.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한다.
- 3)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다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한다.
- 4)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한다.
- 5)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고, 이에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한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아멘’을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한다.
- 6) 신자들은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는다.
- 7) 성경과 성가집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을 사용하며, 현금 봉투 등의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재거에 감사드리며

박성규 엘리지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II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어머니, 전 세계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동정 마리아님,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아래 놓여 있는 저희를 자애로이 굽어보소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매장 방식에 상심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앓고 있는 이들을 염려하면서도 확산 방지를 위해 가까이 있어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고,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걱정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자비로운 아버지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이 모진 시련이 끝나고 희망과 평화가 새롭게 동트게 하소서.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러하셨듯 거룩하신 당신 아드님께 청하시어, 환자와 희생자의 가족들이 성자께 위로를 받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긴급 상황의 최일선에서 다른 이들을 구하고자 목숨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의사와 간호사, 보건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소서. 그들의 영웅적 노고에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선의와 건강을 주소서. 밤낮으로 환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곁에서 돌보아 주시고, 복음에 충실히 따라 사목적 배려로 모든 이를 돕고 지원하는 사제들 곁에 함께해 주소서.

복되신 동정 성모님, 과학자들의 정신을 밝혀 주시어 그들이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올바른 해결책을 찾게 하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도우시어, 그들이 지혜와 배려와 관용으로 생활필수품 부족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원하고, 해안과 연대로 사회적 경제적 해결 방안을 수립하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 저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어, 군비 증강과 확충에 사용된 막대한 자금이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예방하는 적절한 연구 증진에 쓰일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저희가 위대한 한 가정의 일원임을 깨닫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는 유대를 인식하여, 형제애와 연대의 정신으로 수많은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확고한 믿음과 인내로운 봉사와 항구한 기도 안에 머물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소서.

근심하는 이들의 위안이신 마리아님, 곤경에 빠진 모든 당신 자녀를 보듬어 주시고 하느님께 간구해 주시어, 하느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저희가 이 비참한 감염병 확산에서 해방되어 다시 일상의 평온한 삶을 되찾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 길을 밝혀 주시니 당신께 저희를 맡기나이다. 아멘.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35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달성피부과
 Since 1985
 아토피·만성피부
 보톡스·탈모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베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공장직영도매(동고령C)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불박이,신발장,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진동 학회장
 대구 경학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 / 의학박사
 (현 연세대 외래교수) **박중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 · 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www.theopen-daegu.co.kr **관절!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기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서문시장 맞은편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상운** (안젤로)
송정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박병기(베네딕도) 신부
2018년 5월 25일
- 김영호(멜키울) 신부
1978년 5월 27일
- 윤사물(F.하비에르) 신부
1915년 5월 27일

성소 | 피정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6.12(금) 18:00~14(일) 11:00
장소: 예수고난봉쇄수녀원(청주)
문의: (010)6804-4904

평화계곡피정의집 6월 향심기도 피정

일시: 6.5~7(2박 3일)
6.13~14 / 6.27~28(1박 2일)
대상: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선착순 10명)
문의: (010)3422-7587

교육 | 모집 | 기타

학산셋별학교 교육생 모집

마감: 6.30(화) / 입학식: 6.1(월) 예정
내용: 검정고시 시험대비 교육지원
대상: 중·고등 검정고시 학력취득 희망자
신청: 전화 및 내방 접수
문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634-7230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5월_이성웅(세례자요한) 신부

6월_신중호(분도)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채용 | 안내

교구 청년국 직원 채용

서류: 청년국 홈페이지 참조
마감: 6.13(토) / 접수: 우편 또는 방문
문의: 422-6692

주교좌 계산성당 사무직원(사무장) 채용
자격: 40세 이상, PC가능, 1종 면허 소지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마감: 6.7(일)

문의: 계산성당, 254-2300

다사성당 관리업무 계약직 채용

자격: 고졸 이상, PC가능(60세 이하)
서류: 자필이력서, 교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문의: 다사성당, 587-7300

월성성당 관리장(계약직) 채용

자격: PC가능, 1종 면허 소지자
(60세 이하)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월성성당, 635-0963

SOS프랜치스카의집 조리사 채용

자격: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 주말·공휴일 포함 주 5일
문의: 사무행정팀, 986-2077~8
<http://www.sos-silver.or.kr>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용택(안셀모)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싹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진구)
수성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칠곡속내과
CHIL-GOK SOK INTERNAL MEDICINE

위·대장내시경, 용종제제술
만성질환클리닉, 성인예방접종

원장 이정수(요한) T. 053)327-0300
대구 3호선 팔거역 4번 출구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좋은 병원

날씨원한위대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 내정영문 세무 전문의 노성근 아우구스티노

하마의사의 건강벨트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 몬스터노스
법어대이케어센터

프리미엄 주야간보호/신축4층건물(센터전용)

원장 차영진(에스델) 사회복지학 박사

법원 뒷편, 범어공원(아시골) 앞
053)744-0900 | 010-2020-8304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각지역 공항출발, 미사4회
성지 6곳, 신부님 동행, 특2급 호텔

167개 국내성지순례 1박2일

전국 15개 교구, 12개 코스 매월 출발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오완수(바오로)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학수업위원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